

■ 주요 업무 사례 ■

국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'완전물급부 등 소송'에서 대법 파기환송

지평은 국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자동차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'원고의 청을 전부 인정하라'는 취지의 대법 파기환송처분을 받았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[리걸타임즈 - \[순배\] "마이바흐 고장 수리에 11개월...교환가치 하락분까지 배상하라"\(2016. 6. 23.\)](#)

[담당 변호사]



김지홍 변호사



박보영 변호사